

큰스님 수행하담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불품(術佛品) ①

已勝不受惡 이승불수악
一切勝世間 일체승세간
留智勝無漏 예지학무강
開闢令人道 개몽령인도

이미 모든 악을 이겨 더는 받지 않고
일체 세간에서 뛰어났도다
그 밝은 지혜 가없이 넓어
어두움 걷어내 도에 들게 하시네

決網無罟罟 결망무과에
愛盡無所積 애진무소적
佛意深無極 불의심무극
未踐途令踐 미천적령천

반뇌의 그물罟어 걸림이 없고
갈에 다하여 쌓인 없도다
부처님 뜻은 끝간에 없이 깊어
밟아 보지 못한 길 밟게 하시네

勇健立一心 용건입일심
出家日夜滅 출가일야멸
根斷無欲意 근단무욕의
學正念清明 학정념청명

“악도를 부취 건너면 부처이고
인연의 종자 끊으면 불제자”

곧세고 씩씩하게 한뜻 세워서
집을 떠나 밤 낮으로 멀도 닦았네
육근을 끊어 욕심 버렸으니
배움은 바르고 맑고 밝아라

見諸淨無穢 견제정무에
已度五道淵 이도오도연
佛出世世間 불출세세간
爲除衆憂苦 위제중우고

진리를 보아 마음의 더러움 씻었으니
이미 오온의 연못을 건넜네
부처님 나오심은 온 세상 비춤이라
온갖 근심 고통 없애주시네

得生人道難 득생인도난
生壽亦難得 생수역난득
世間有佛難 세간유불난
佛法難得聞 불법난득문

사람의 길에 태어나기 어렵고
오래 살기 또한 어려운데
세상에 부처님 오심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 듣기 또한 어려워라

我既無所礙 아기무귀보
亦觀無伴侶 역무무반려

積一行得佛 적일행득불
自然通聖道 자연통성도

나는 이미 돌아가 기쁨도 없고
흠로 뜻세워 짝할 이도 없다
오직 한길 수행 쌓아 부처되어
절로 거룩한 도 통하였도다

船師能渡水 선사능도수
精進爲橋梁 정진위교량
人以淨性聚 인이정성계
度者爲健雄 도자위건웅

배사공은 능히 물길 건너고
사무친 노력은 다리가 된다
사람은 저마다 혈연에 얽히나니
이를 건너는 이 씩씩한 대장부일세

壞惡度爲佛 괴악도위불
止地爲休息 지지위휴지
除障爲學法 제근위학법
斷種爲弟子 단종위제자

악도를 부취 건너면 부처이고
애욕 그치면 법지라하며
계율 받아서 배움의 법을 삼고

인연의 종자 끊으면 불제자라 한다

觀了第一 觀행인제일
佛說泥再最 불설니인최
捨罪作沙門 사죄작사문
無難者於彼 무난자어비

관행에는 인내가 제일이 되고
열반이 으뜸이라 부처님 말씀했네
죄 짓는 일 버리고 사문이 되어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는다

不馳亦不馳 불요역불뇌
如成一時 여계일제지
少食捨身命 소식사신탈
有子難慈惠 유행유은처
慈願以有難 체이유원
足能奉佛教 시능봉불교

반겨들게도 괴롭히지도 않고
계율 그대로 일체를 지키며
적게 먹어 탐욕을 버리고
그윽한 고요속에 바르게 행하며

마음 오로지 해 지게기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받드는 것

“스님답고 불자다운 것은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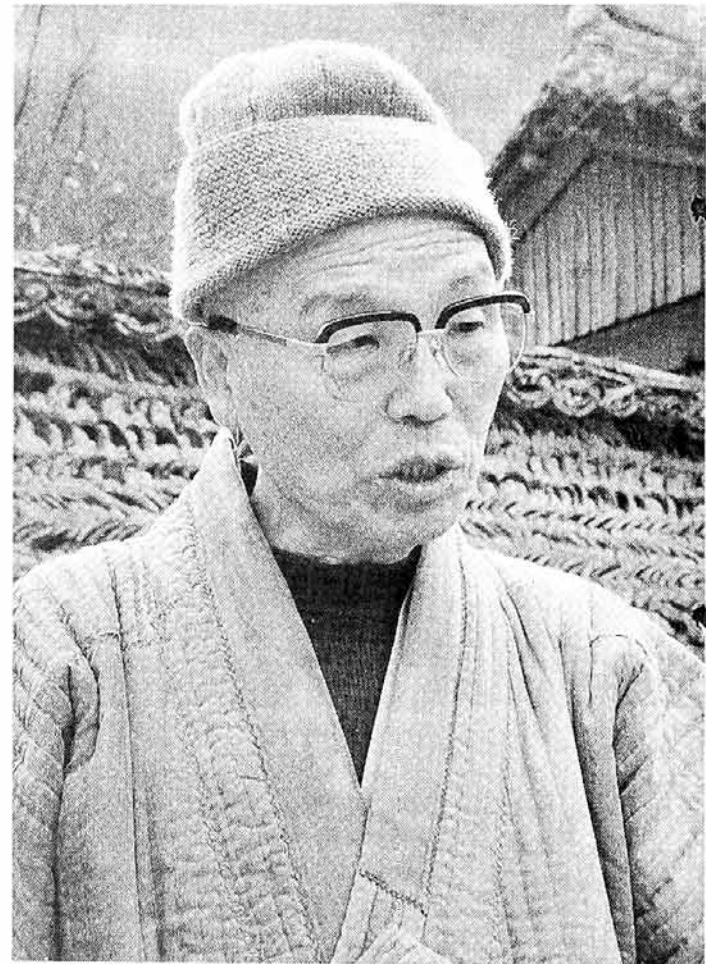
한국불교 승보종찰(僧寶宗刹) 조계산 송광사, 보조스님의 맥을 잇는 조계총림 송광사 제 5대 방장에 추대된 보성대중사(70)를 뵈러 가는 18일 오전, 송광사 경내는 첫 눈발이 휘날렸다.
임회(林會) 대종의 만장일치 추대를 위해 1년5개월여 어른을 모시지 못한채 병자년 동안거와 정축년 하안거를 보낸 조계총림에 반가운 사설로 비쳐졌다.
송광사는 지난 69년 하안거때 해인사에 이어 두번째로 총림을 설치했다. 초대 주지 취봉 잠섭대중사(83년 열반)가 송광사를 정화하면서 대중들에게 “비구 기준에 맞춰 살 스님은 수행하고 아니면 떠나라”는 고지와 함께 “구산스님을 모셔와 총림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자신은 열불원의 회주를 맡아 설립했다.
조계총림은 초대 방장 구산스님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하는 수행

(83년 12월 열반, 2대까지 역임) 3대~4대 일각스님(96년 6월열반)에 이어 보성스님이 수장을 맡게 됐다.
화엄전에 주석하는 방장 보성스님은 서울서 찾아온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맞이했다.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방장직을 수락했다는 스님은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서야 하는 수행”이라며 “승단의 신빙 회복이 이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런데에서 승보종찰로서의 송광사가 역할해야 할 몫이 그 어느때 보다 많다”는 스님은 선대 큰 스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수행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추위’가 몰아닥쳐 대중들과 같이 밖의 무우뿌기 울려야 했다는 방장스님은 인터뷰 후 김장준비를 살피기 위해 겨울양식 밀친인 밭고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절마다 가풍이 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스님의 목우가풍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총림은 승보종찰의 위상에 걸맞게 규율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 규율은 개개의 자율성을 존중한 청규여서 이른바 사회의 ‘군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광사는 정화도 부처님 법에 따라 전체 대중의 자율의사에 맞게 함께 진행됐듯이, 스스로 수행하다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스님은 본인이 알아 걸음을 짚어지고 떠납니다.
근대에 이르러 효봉스님 구산스님 일각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지도 덕분이지요. 여기에 역대 주지들의 성역화 중창 불사로 가람의 면모일신을 이뤘습니다.

- 1928년 경복 성주생
· 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시미계 수지
· 50년 해인사에서 삼할음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2~71년 통영 미려사 주지
· 73~74, 78~79, 91~94년 송광사 주지
· 74~83년 중앙총회의원 (4~7대)
· 91년 대한불교간계대학교 총장(준총사)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단일계단 수계신일 증사, 호계원 재실위원.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승가에선
무소유와 무소임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아직 도량불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송광사가 조계산문을 연 그 뜻을 다시 새기면서 도량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의 극복과도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내가 송담스님(용화사 법보선원 원장)하고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단의 신리가 회복될 때 까지는 대중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수행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추위’가 몰아닥쳐 대중들과 같이 밖의 무우뿌기 울려야 했다라는 방장스님은 인터뷰 후 김장준비를 살피기 위해 겨울양식 밀친인 밭고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스님들이 요즘 너무 배가 불러요, 세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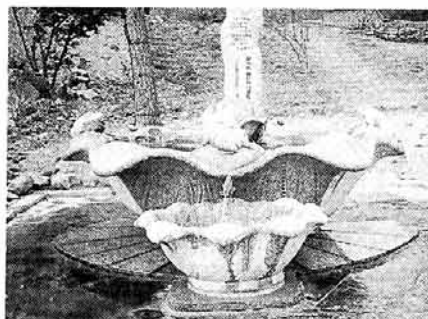
에서요 기성세대가 “우리 자란 시절...” 운운 하면 “또 그소리”한다고 합디다만 오늘의 한국불교를 일으킨 선대 스님들은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소유와 무소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몸이나 생명을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 누가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경쟁과 그 자체였습니다. ‘장좌불와’ ‘하루 1종식’ ‘무문관 돌기’ 등 지금 사람들에게 켜 무슨 무형문화재처럼 여겨지고 말구실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행현장에서 가슴으로 눈빛으로 확인되고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지

금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우리가 선진대열에 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가치전도의 부작용이 승단까지 파고든 것이 아닌가 몹시 우려됩니다. 스님들은 한 시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결코 출가 본분을 놓고 살아가는 안 됩니다. 시주들이 늘고 절살림이 풍족하다고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 덕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이 민주화되고 선진 서구의식이 어떻고 합디다만, 서양인들 사는 식이 옳은 잣대가 아닙니다. 더더욱 부처님 계율을 의반하고 가르침을 목표로 삼아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 승가야 말해 무엇합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스님들도 세상살아가는데 휩쓸려 민주화에 맞춘 변화가 어찌고 하는 연행을 보입니다. 한심스러워요. 무조건 서양 것이 가치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불교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고의 불변한 진리에 귀의한 부처님제자가 스스로의 본분

석불, 천불진, 만불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값이 남을 선물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현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삼미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택배로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시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원발성고혈압, 저혈압, 아린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유방암,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결핵, 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비키는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숙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멀어지거나 어린이는 산삼장비는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재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복합효능은 스님

오늘도 衆生 衆生과 佛功으로 불행하시는 스님 지치신 功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壽命 功덕으로 미취 精進 기쁨을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배공해 드리하고자 하니 무담없이 勿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산삼(삼미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원의뢰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약용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120가지 下蔘125 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다. 그중 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 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비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상외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